

전남 '맛·멋·흥' 앞세워 유럽 관광시장 공략

김영록 지사, 독일 베를린서 첫 관광설명회 개최 세계관광문화대전 콘텐츠·트래블 푸드박스 호응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등에 소개했다.

독일 베를린 마리티호텔에서 열린 이날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원직 주독일공사, 랄프 오스텐도르프 베를린관광청 대표,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장, 김상근 재독호남향우회장 등 독일을 포함해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관·단체 인사가 대거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유럽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가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

치를 위해 아심차게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전남을 축제와 관광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콘텐츠와 명품 숙박시설, 특색 있는 먹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전남의 맛·멋·흥을 알렸다.

김영록 지사는 관광설명회 개최식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 베를린에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전남은 올해부터 3년간 종합 관광축제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개최해 다양한 축제와 흥미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많은 방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독일에서 국내 농수산 가공품을 유럽에 유통하는 이민철 이자룩아시아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마리티호텔에서 열린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서 현지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언론인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는 '전남 트래블 푸드 박스(Travel Food Box)'의 유럽 진출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베를린에 있는 이자룩아시아는 푸드 박스를 통해 한국의 음식과 관광을 현지인에게 소개하는 푸드 트래블 스타

트업이다. 유럽에서 1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매년 300%씩 매출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다. 이자룩아시아가 이날 행사장에서 선보인 완도 김스낵, 보성 가루녹차 등 전남 8개 시·군의 먹거리가 들어있는 푸드박스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의 부엌, 전남'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또한 전남 관광 해외 홍보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한 글로벌 SNS 서포터즈의 유럽지역 발대식도 개최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전남관광 글로벌 SNS 서포터즈를 한데 모아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170명의 글로벌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소비력 높은 유럽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전문여행사와 손잡고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동시에 개별 관광객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광주 총선 당선자 8명, 의원 모임 발족

현안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28일 광주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어 민형배(광산)를 의원을 대표, 정준호 당선자를 간사로 한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을 발족했다. <사진> 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양부남(서구을)·전진숙(북구을)·박근택(광산갑) 당선자들도 뜻을 같이 했다.

/박선강기자

당선자들은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승덕사에서 참배한 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했다.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8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배정받자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직접 도시 브랜딩... '광주 브랜드 학교' 첫발

'당신의 기획은 광주가 된다' 주제 도시브랜드 기획자 양성

광주시는 지난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강좌 '광주 브랜드 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광주 브랜드 학교'는 교육생 36명 모집에 시작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자, 문화 기획자, 홍보분야 종사자, 공직자 등 총 7명이 지원해 2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브랜드 학교를 통해 제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상징 배지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 기억과 경험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가 기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생들은 오는 7월까지 ▲도시 사물 디자인 ▲도시 언어 디자인 ▲도시 경험 디자인 등 3개 분야에서 도시브랜드 기획 이론·실습, 조인 프로그램, 워크숍 등 7차시 수업(35시간)을 이수한다.

수강생들은 광주에서 겪은 경험과 지역 콘텐츠를 도시브랜드로 디자인하고 도시홍보물로 제안할 예정이어서 매력적인 도시 홍보와 도시 브랜딩 기

획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부산 영도와 경북 포항의 도시 브랜딩을 주도한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팀이 강사진으로 참여, 도시 브랜드 디자인 경험과 도시 홍보물 제작 등 현장감 넘치는 비법을 전달하고 조인(멘토링)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우수 수료생 10명에게 시정 홍보 행사와 홍보물 기획 참여 기회, 실습교육 결과물을 사업화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선강기자

시의회 5·18특위, 조사위에 정보공개 청구

조사계획서·직권과제별 조사 활동·사무분장 등 점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8일 "지난 25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조사위 활동에 대해 시민적 평가가 부정적이며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

으로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공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18특위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 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구체적 사무분장 ▲강제 조사권한 활용 명세 ▲출장·용역·자문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문위원회 내부 회의록 ▲근무자 인사카드와 담당 업무, 외부 활동 내역 ▲자문위원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 18개 항목이다.

5·18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책을 찾아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문 제정 해결과 보완 입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선강기자

정다는 5·18특위 위원장은 "오는 5월30일은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시기이고 6월28일로 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해 원 구성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 국회를 대신해 조사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단위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청구 후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기초자료의 포괄성, 조사 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